

The FOUR SEASONS

한라인에게 영감을 주는 매거진 사계

2019 NOVEMBER — Vol. 326



Halla 주|한리

Halla 주|한리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는
1인 가구 증가와
친환경성, 휴대성을 매력으로
사람들의 이동수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다.
단순한 취미나 놀이기구를 넘어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보행과 자전거라는
기존 녹색교통수단과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진정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계 11월호』본문 중

Contents

2019 — NOVEMBER

Vol. 326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http://hallawebzine.co.kr/>

발행일
2019년 11월 4일

Publish
(주)한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신천동 7-19) 02 3434. 5791

Publisher
이석민

Editor in chief
기획팀 최태호

Editor
기획팀 이수민

Planning & Design
경성문화사 02. 786. 2999

Print
경성문화사

Trend

- | | |
|-------------------------|-----------------------------------|
| 04 Hot Keyword | 이동수단에 부는 변화의 바람 Personal Mobility |
| 06 Power Creator | 막힘없이 편리하게 '쌩'나게, (주)피유엠피 |
| 10 Zoom In Trend | 전 세계 도로를 '누비는' 퍼스널 모빌리티 |
| 12 What's On | 직접 이용해봤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

Life + Live

- | | |
|-------------------------|----------------------------|
| 14 Style Guide | 윤이현 주니어프로의 '캐주얼 나들이룩' 스타일링 |
| 18 Tasty Story | '펄떡펄떡' 세월 맞은 대하 |
| 20 Lovely Family | 루원시티조성 현장 김영표 프로 가족 |
| 24 Culture Salon | 철강과 유리, 세로의 건축을 실현하다 |
| 26 Science Story | 태풍의 소용돌이가 빙빙 도는 이유 |
| 28 Tourist | 아르헨티나에서 온 편지 |



Cover story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관심과 점점 늘어가는 1인 가
구, 편리한 이동과 저렴한 유지
비라는 매력에 힘입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illust. 제니곽

Halla + Culture

- | | |
|--------------------------|-----------------------------------|
| 34 Look Into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스마트관을 둘러보다 |
| 38 Lead to Future | 스마트건설 실현을 위한 노력 'Halla Drone Day' |
| 42 Halla Class | 사르르 녹는 달콤한 유혹, 마카롱 만들기 |

Halla + IN

- | | |
|------------------------|--|
| 46 Halla News | |
| 48 Halla Board | |
| 49 Get Healthy | |
| 50 Notice Board | |

이동수단에 부는 변화의 바람,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쓰는
퍼스널 모빌리티.
연료비 부담이 없고 친환경적이면서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언덕을 척척 오르고
차가 못 가는 좁은 길도 쉽게 다닐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날로 늘어만 가는 이용객 덕에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Segway Ninebot Mini Lite



Segway Ninebot One S1

‘개인화’ 되어가는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를 동력원으로 쓰는 개인 이동수단과 관련 산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없고, 친환경적이면서 휴대성이 뛰어난 이동수단이다. 모터의 힘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작고 가볍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 연계하기에도 좋다. 최초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2001년 12월 처음 등장한 ‘세그웨이(Segway)’로,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Dean Kamen)에 의해 발명됐다. ‘PC보다 인기를 끌 제품’, ‘인터넷보다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극찬을 받은 세그웨이는 2002년부터 시중에 판매됐고, 이후 다양한 형태의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초가 됐다.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을 꼽을 수 있다. 어디든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다리를 움직이는 동작 없이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용자들의 발이 되어주는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해 이동수단은 점차 ‘개인화’되고 있다.



ZYRODRONE Z1

편리함, 휴대성, 경제성이 인기비결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약 6만 대 수준이던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2022년에는 2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5년 일본 후지경계연구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개인교통수단 시장은 2020년까지 1억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서서 탑승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5년 4,000억 원에서 2030년 26조 원으로 급속한 성장이 전망된다.

이처럼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각광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편리함’을 꼽을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 속도는 최대 20~30km로,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나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가깝고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다. ‘휴대성’도 매력으로 꼽힌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내연기관 교통수단에 비해 크기와 무게가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용이하다.

‘경제성’ 역시 인기비결 중 하나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품 가격이 2000년대 초반 1,300만 원대에서 2017년 100만 원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이유와 환경문제 등의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늘고 있다.



BMW E-스쿠터

사고예방, 정부규제는 해결과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수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사고는 총 297 건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지를 위해 전 세계 나라들은 각종 규칙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은 자전거 도로 이용 시 한 줄로 주행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했으며, 독일은 면허 취득, 번호판 부착, 반사등 및 후미등, 경적 등을 설치한 뒤 자전거 도로로 주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별도의 퍼스널 모빌리티 법안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하며 17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인도로 달리고 있고, 일부 중고교생이나 면허증이 없는 성인도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른 단속도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범부처 TF를 구성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행안전기준과 제품안전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시속25km 이하 개인형 이동수단’에 한해서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사고와 주차 공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피유엠피

윤문진 대표

막힘없이
편리하게 ‘씽’나게,



라이프 모빌리티
씽씽

거리를 다니다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이동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킥보드는
단순한 취미나 놀이기구를 넘어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유행을 선도해나가는 중이다.
이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인 (주)피유엠피 윤문진 대표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들었다.
또 (주)피유엠피에서 제공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씽씽의 탄생 배경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글 편집부 사진 (주)피유엠피 제공

Q. (주)피유엠피는 어떤 기업인가요. ‘씽씽’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세요.

(주)피유엠피는 O2O 결합형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씽씽’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서비스 기획·개발 인력 30명, 전동 킥보드 수리·교체·배치 등 현장 운영인력 30명 등 약 60명이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씽씽’을 도입한 이후 현재 강남, 서초, 송파, 성수, 광진 지역에서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연내에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로의 확장을 계획 중입니다.

Q. (주)피유엠피의 서비스 ‘씽씽’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얼마나 되며, 그 반응은 어떤가요?

5월 초 시범서비스 이후 80일 만에 가입자 4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7월 중순 정식 서비스 이후에는 현재 누적가입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10월 24일을 기준으로 누적 이용횟수는 60만 건, 총 이동 거리는 240만km에 달한답니다.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로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항상 “승부는 길 위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유지보수와 관리, 고객 응대 등에서 성패가 갈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운영과 하드웨어 두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2세대 기기를 도입해 하드웨어 경쟁력을 높였고, 또 우수한 하드웨어가 운영 효



- 2019. 05
‘씽씽’ 서비스 출범.
강남 지역 시범운영 시작
- 2019. 06
60억 투자유치 성공
- 2019. 07
과금 서비스 개시
- 2019. 08
가입자 5만 명 확보.
서초 지역 서비스 확대.
운영 시간 자정까지 연장
- 2019. 09
‘씽씽라이딩보험’ 적용.
송파, 성수 지역 서비스 확대
- 2019. 10
가입자 10만 명 돌파.
광진 지역 서비스 확대



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고 충격방지 장치를 탑재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했습니다. 저희 전동킥보드는 독일 주행안전 기준을 유일하게 통과했으며 국내 KC인증도 획득한 모델로, 어느 곳에 내놓아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라이프모빌리티 전용 보험서비스도 적용했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가 ‘씽씽’을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Q.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앞서 2012년 온라인 기반 배달 및 심부름 서비스 ‘띵동’을 창업해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띵동’의 배달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우연히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래 이거구나!’ 하는 느낌이 왔죠. ‘띵동’으로 고객들과의 네트워크를 어느정도 구축해왔기 때문에 씽씽 모빌리티가 눈에 들어온 거죠.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중 씽씽의 이용 형태를 분석해보면 18세부터 34세까지를 뜻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80%를 차지하고, 주중 이용 횟수가 주말 대비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 시간

에 출동, 불편을 해결해줌으로써 고객만족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친환경성과 라스트 마일(Last mile) 해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심 교통량 증대, 주차 공간 부족 등 복잡한 도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다수 생겨나고 있죠. 이에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감과 피곤함을 동시에 느꼈고, 대안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선택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과 대중교통까지의 연결고리이자, 불편함은 해소하고 환경은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찾던 중에 퍼스널 모빌리티가 눈에 들어온 거죠.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중 씽씽의 이용 형태를 분석해보면 18세부터 34세까지를 뜻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80%를 차지하고, 주중 이용 횟수가 주말 대비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근 시간

66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친환경성과 라스트 마일 해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복잡한 도시 교통체계에서 느끼는 피곤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퍼스널 모빌리티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선택하게 만들었죠.

99

인 오전 8시부터 10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용률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직장인들이 출퇴근 단거리 이동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Q. 퍼스널 모빌리티의 범위는 날로 커지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는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전동킥보드에 한정해서 수요를 예측해보면, 전체 시민 중 1~5%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를 1천만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10~50만 대 정도의 전동킥보드가 도심을 누비고 다니겠죠. 밀레니얼 세대들은 모두가 전동킥보드 위에 서서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웃음)

Q. 앞으로 씽씽이 추구해나갈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적으로는 연내 1만 대까지 확장하고,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공장, 대학가 등으로 B2B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에요. 땅동 음식가맹점을 대상으로 파킹 스테이션도 준비 중이고요. 아직은 테스트 중인데, 연말까지 50여 개 스테이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씽씽을 타고 가면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가맹점에서 식사 시 씽씽 기본료를 인하해주는 등 형태는 다양하게 생각중이랍니다. 조만간 모빌리티와 배달을 연계한 월정액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며, 더 나아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계한 환승 서비스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에요. 일부 광역시와 도시에서는 이미 스마트 도시계획안의 일환으로 버스와 지하철,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는 원패스 상품을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연간 10만 대를 운영해 전체 전동킥보드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확보하는 게 최종 목표랍니다.

Q. 씽씽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희는 씽씽이 ‘새로운 이동생활’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있고, 급격히 성장하는 국내 시장을 고려하면 며지 않아 씽씽이 혁신적인 ‘준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웃음) 국내 최초 O2O 결합형 플랫폼, 2세대 모델 도입, 소비자 보험 등 다양한 경쟁력을 토대로 국내 마이크로 모빌리티 생태계를 선도해나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씽씽의 차별화 포인트 셋



충격완충장치로 승차감 UP

‘씽씽’은 전 제품을 배터리 교체형 2세대 모델로 바꾸고 KC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국내 도입 전에도 독일에서의 주행 테스트를 통과하여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주행 가능 시간은 4시간으로 다른 1세대 모델과 비교해 약 2배 길며, 큰 휠 사이즈, 충격완충장치 탑재로 보다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한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콜센터

‘씽씽’은 국내 처음으로 시도되는 O2O 결합형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 모델이다. 라이프케어 전문 브랜드 ‘띵동’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신속한 배터리 관리, 수리, 점검 등 안정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띵동’의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고객 호출 시 라이더가 30분 이내 출동, 불편을 해결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킥보드전용보험서비스 제공

라이프모빌리티 전용 보험서비스를 적용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씽씽’이 보유한 경쟁력이다. ‘씽씽라이딩보험’은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사용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씽씽이 제공하는 보험으로, 전동킥보드 결합사고는 물론 대인 사고배상책임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전 세계 도로를 ‘누비는’ 퍼스널 모빌리티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에는 2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중에서도
전동킥보드의 인기가 가장 높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알아봤다.
글 편집부

국내시장 규모 및 전망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활용 현황의 변화

최근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1인 가구의 확산,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퍼스널 모빌리티’가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다. 별다른 조정장치 없이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전동휠과 더불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인기를 얻는 중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글로벌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22년까지 7.7%가량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중국은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기자전거를 생산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했다. 중국의 전기 이동수단 산업의 경우 최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제품 생산도 글로벌 시장 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신규 등록한 배터리 EV 상품의 78%를 중국에서 만들었으며, 2016년에 생산된 87.3만 대의 EV 중 43%가 중국 OEM 상품이었다.

실제로 중국 샤오미를 투자자로 보유하고, 2015년에 세그웨이를 인수한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 나인봇의 2018년 매출액은 30억 위안(4억 5,800만 달러)을 훨씬 뛰어넘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전기자전거 이용 인구는 5년 전인 2014년 이미 4억 명을 넘어섰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명칭으로 인기를 얻기도 전에 중국에서는 이미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Audi 전동킥보드 '이트론(e-tr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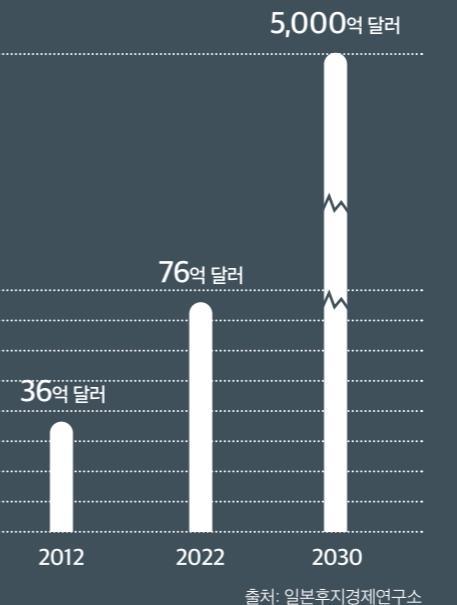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전망

66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시장 공세가 이어지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99
현대자동차 ‘제트(ZET)’

Trend

해외시장 매출액 전망



한국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노화된 기업들로 봐

사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까지는 평균 6만 대를 판매하는데 그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후 연평균 12.8%씩 성장하면서 향후 2020년에는 2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등장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업체 ‘빔’과 미국에서 출발해 유럽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임’이 한국에 진출했으며, 독일 윈드는 부산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시장 공세까지 이어지며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는 관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8월, 차에 싣고 다니며 충전하고 사용 할 수 있는 일체형 탑재의 전동킥보드를 공개했다. 평소에는 접이식으로 차량 내부에 장착해 운행 중 발생하는 전기로 충전하고, 차를 주차한 뒤에 꺼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차는 또 개방형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플랫폼인 ‘제트(ZET)’ 구축을 완료하고 중소 공유서비스 업체들과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내놓았다. 제주 이호테우해변과 송악산 2곳에 전동킥보드 30대와 전기자전거 80대를 투입해 시범서비스를 했으며, 최근에는 서울과 대전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 기업들 역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독일 아우디는 ‘e트론’ 전동킥보드를 내년 하반기쯤부터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아우디는 이 전동킥보드를 자사 전기차에 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포드 역시 ‘고바이크’라는 전기자전거 공유 플랫폼을 2017년 오픈한 데 이어, 지난해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스핀’을 인수한 바 있다. 독일 다임러 또한 독일 전역에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제너럴 모터스(GM)는 전기 자전거 ‘e-바이크’를 판매하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처럼 국내·외,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30년에는 5,000억 달러(약 608조 원)까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신빙성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직접 이용해봤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Trend setter's Choice



오후 5시 30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한
한 프로는 가방과 헬멧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두근두근',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에
긴장한 표정의 한 프로.

헬멧을 쓴 뒤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중
미리 점찍어둔 아이에게 다가갔다.
글 편집부



Step 1 앱 다운받기

최근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킥보드 공유 서비스는 킥고잉, 씽씽, 고고씽, 빙, 라임 등 5~6개에 이른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킥보드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각각의 브랜드마다 특색 있는 색깔과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인의 마음에 드는 서비스를 선택, 앱을 다운받으면 된다.

한 프로의 선택은 '킥고잉'. 이유는 단순했다. 본인이 킥고잉의 대표 색인 민트색을 좋아한다나?



Step 2 내 주위 킥보드 찾기

앱을 실행하면 내 주변에 있는 킥보드 위치가 표시된다. 가까운 킥보드를 선택하면 이용 가능 여부와 남아있는 배터리, 운행 가능 시간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여 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프로는 여러 대의 킥보드를 클릭해 본 결과 배터리 충전율 70%로 가장 높게 표시된 'AA6S8E' 킥보드로 선택한 뒤 지도에 표시돼있는 지점으로 이동했다.



Step 3 대여하기

내가 이용할 킥보드를 찾았다면 대여 방법은 간단하다. 앱에서 <이용하기>를 클릭한 뒤 QR코드를 읽어주면 끝. 혹여나 QR코드가 잘 읽히지 않는다면 아래쪽에 <코드입력> 버튼도 별도로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금액은 처음 5분에 기본료 1,000원이며 이 후 1분당 100원씩 추가된다. 하지만 이벤트로 지급되는 쿠폰을 잘 활용하면 공짜로도 탈 수 있다는 사실!



Step 4 킥~고잉! 신나게 이용하기

QR코드를 읽고 나면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킥보드 잠금장치가 풀린다. 운전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핸들 왼쪽엔 브레이크레버가, 오른쪽엔 주행레버가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출발할 때는 오른쪽 주행레버를 누르면서 수동 킥보드를 타듯 발을 세 번 굴려 준다. 생각보다 빠르게 출발하기 때문에 꼭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여유 있던 한 프로도 출발할 땐 '움찔' 겁먹었던 건 비~밀. 멈추고 싶을 땐, 브레이크레버를 당겨주면 부드럽게 정차할 수 있다.



Step 5 반납하기

전동킥보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다른 이용자들도 금방 찾을 수 있는 곳에 주차한 뒤 <종료하기>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근처에 지정주차공간이 있다면 그 곳에 세워두면 좋지만, 없다면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담벼락과 길가 등에 세워둬도 무방하다. 킥보드마다 GPS가 달려있어 어느 곳에 있든지 업체에서 추후 수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띠링' <종료하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오는 카드결제 알림음. 이용한 시간만큼 자동으로 결제되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 하나, 헬멧 착용
안전을 위해 헬멧을 꼭 착용하고 이용해 주세요.
- 둘, 운전 면허증
운전 면허증(원동기면허증 가능)을 취득한 뒤 이용해 주세요.
- 셋, 교통법규 준수
신호등, 교통 표지판을 포함한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주세요. 횡단 보도에서는 내려서 이용해 주세요.
- 넷, 이용 장소
도로 위의 차량에 주의하시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사계> 기자가 소개하는
이달의 즐길거리

개발사업본부 S사업팀 조세웅 프로



최근 부산에서 소위 '핫'한 명소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쯤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를 즐겼던 부산의 '해리단길'인데요. 구 해운대 역사의 뒤편으로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골목을 지나 조그만 삼거리에 이르면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아기자기한 가게들을 찾을 수 있답니다. 뻔한 해운대 풍경에 익숙해진 분들은 이곳에서 색다른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산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꼭 한 번 방문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리단길

해리단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좁은 도로이다. 처음 길 이름은 해운대구의 경리단길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는데, 예쁜 카페와 맛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부산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인정받으며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위치 부산광역시 지하철 해운대역 4번 출구 뒤편

들녁의 억새는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단풍의 색은 하루가 다르게 붉어진다.
어느새 11월, 코끝이 시려지기 전에 제대로 된 나들이를 떠나야 하는 계절이다. 감성 가득한 초겨울 나들이를 즐기고 싶다면, 하남감일7B/LAPT 현장의 윤이현 주니어 프로가 선보이는 캐주얼 나들이룩 스타일링에 집중해보자.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스타일링 이서연
의상 협찬 현대아울렛 가산점
브랜드 협찬 티아이포맨(T.I FOR MEN)

패션,
여행을 떠나다!

캐주얼 나들이룩 스타일링

하남감일7B/LAPT 현장 윤이현 주니어 프로



Style.1

가을과 겨울사이, 보온성과 실용성 UP

보온성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갖춘 모직 재킷이 초겨울 아우터 필수템으로 부상했다. 포근한 내구성 소재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스타일을 찾는다면 캐시미어 CPO 재킷이 제격이다. 뒤쪽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코튼 레이온 카고 팬츠와 같은 슬림한 하의를 매치하면 스타일에 안정감을 더할 수 있다.

티셔츠 사선 지퍼 하이넥 후드티셔츠 19만 9,000원(아울렛가 11만 9,400원) **팬츠** 코튼 레이온 카고 팬츠 17만 9,000원(아울렛가 8만 9,500원) **아우터** 캐시미어 CPO 재킷 32만 8,000원(아울렛가 동일)

“오늘 스타일링 받은 옷을 입고 고향인 포항으로 늦은 휴가를 떠날 계획입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나들이 장소요? 서울의 나들이 장소는 뭐니 뭐니 해도 한강공원 아닐까요? 한강변을 산책하고 난 뒤에 먹는 치맥!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웃음) 제 고향 포항에도 좋은 나들이 장소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일대해수욕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포리카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자랑하거든요. 포항 여행을 하신다면 꼭 한 번 들러보세요~ 강력추천합니다!”

Style.2

심플한데 유니크하다?
무난함 속 멋스러움

옷 잘 입는 남자는 겨울철에 더욱 돋보인다. 베이직하고 심플하지만, 트렌드를 반영한 과하지 않은 유니크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버사이즈 히든 포켓 후드티셔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걸 또 해낼 수 있다. 그레이 색상이 전하는 시크함에 스키니핏 버튼풀라이 데님 팬츠의 경쾌함을 더하면 무난함에서 멋스러움을 찾게 될 것이다.

티셔츠 오버사이즈 히든 포켓 후드티셔츠 17만 9,000원(아울렛가 10만 7,400원) **팬츠** 스키니핏 버튼풀라이 인디고 데님팬츠 16만 9,000원(아울렛가 8만 4,500원)





Style.3

오락가락 날씨엔 항공 점퍼, 너 하나면 돼!

부담을 주기보다는 실용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이 중심이 되는 2019 F/W 트렌드 전반적으로 여유 있는 실루엣에, 무심한 듯 톡 걸치기만 해도 힙한 스타일을 완성해주는 항공 점퍼의 계절이 왔다. 여기에 레터링 그래픽 티셔츠를 함께 연출하면 영과 어덜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좀 더 자유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티셔츠 레터링 그래픽 티셔츠 15만 9,000원(아울렛가 9만 5,400원) **팬츠** 코튼 레이온 카고 팬츠 17만 9,000원(아울렛가 8만 9,500원) **아우터** 데일리캐주얼 알파인더 스트리 항공점퍼 21만 5,000원(아울렛가 12만 9,000원)

Shopping Guide

현대시티아울렛 가산점 11월 행사

현대시티아울렛 초특급 쇼핑축제 Super Price

일시 11. 1(금) ~ 11. 11(월), 11일간

타미힐피거&빈폴&헤지스 대전

일시 11. 1(금) ~ 11. 7(목)

장소 6층 대행사장

가격 빈폴 구스타운점퍼 179,000원 외

남성 아웃도어 Down&Down Festival up to 80%

일시 11. 8(금) ~ 11. 14(목)

장소 6층 대행사장

브랜드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지오지아, 앤드지 외

가격 폴리스 재킷 89,500원~, 정장 99,000원~, 거위털 롱 다운재킷 153,000원~

GUESS 인기상품 특집

일시 11. 8(금) ~ 11. 14(목)

장소 5층 행사장

가격 데님 1+1 39,000원 외



Style.4

바람 한 점 들어올 수 없는 철벽방어 룩

혹 느껴지는 싸늘함에 자연스레 옷깃을 어미게 되는 날씨에는 여리 가지 옷을 자유롭게 겹쳐 입는 게 최고다. 체크 셔츠 위에 연분홍색 스웨트 셔츠를 입으면 바람 한 점 들어올 수 없는 철벽방어 룩이 된다. 여기에 어디든 덧입기 좋은 포켓 장식 후드 탈부착 압상을 걸치면 화룡점정. 물론 각각의 아이템 모두 단독으로 입기에도 손색이 없다.

셔츠 셔닐사 데코 오버사이즈 체크 셔츠 17만 9,000원(아울렛가 10만 7,400원) **티셔츠** 소매 로고 자수 스웨트 셔츠 15만 9,000원(아울렛가 6만 9,000원) **팬츠** 스키니핏 버튼풀 라이 인디고 데님팬츠 16만 9,000원(아울렛가 8만 4,500원) **아우터** 포켓 장식 후드 탈부착 벨ти드 압상 49만 9,000원(아울렛가 24만 9,500원)

‘펄떡펄떡’



제철 맞은 대하



옛날 말에 목필대하라는 말이 있다. 봇처럼 큰 새우라는 뜻이다. 보통 대하라면 이런 새우를 떠올린다. 바다가 차가워지고,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잡하는 대하는 큰 선물이었다. 두툼하고 크고 맛도 좋았다. 요즘은 어황이 나빠져서 많이 잡히지 않지만, 어른들 말씀을 들으니 서울의 시장에도 가을에 대하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주로 굽거나, 계란 지단과 갖은 양념을 올려서 귀한 잔칫상에 내는 ‘귀물’이었다고 한다. 제법 서늘해진 계절 탓일까, 이내 머릿속에 대하의 짭짤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떠오른다.

글 박찬일 요리연구가

대하는 큰 새우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품종 이름으로도 쓰인다. 자연산이다. 양식도 꽤 했었는데, 이제는 주변에서 국산 품종의 대하 양식장을 보기 어려워졌다.

대하는 자연산으로 잡히지만, 십몇 년 전만 해도 서해안 곳곳에서 대하를 길렀다. 양식장에 가서 대하를 먹는 것이 당시 미식가들의 겨울 채비였다. 새우양식장 근처에 가면, 비닐하우스를 치고 임시로 새우를 팔았는데 회로도 먹고 소금구이도 했다. 구이판에 천일염을 넉넉히 깔고 톡톡 튀는 산 새우를 넣은 후 얼른 뚜껑을 닫는다. 원래 갈색을 띠는 새우가 금세 불그스름하게 익으면서 식욕을 돋웠다. 손으로 까서 그냥 먹어도 간이 되어 있었고, 초장이나 고추냉이를 찍어 먹었다. ‘실 가는 데 바늘 간다’고, 이 때 어른들은 당연하게도 소주 한 잔을 곁들이곤 했다.

생물부터 요리까지, 활용도 높은 식재료

대하는 서양식당에서 고급 요리로 많이 팔린다. 버터에 굽거나 오븐구이해서 소스를 발라낸다. 소스로는 보통 새우 머리에 들어 있는 내장을 양파와 토마토소스로 양념한 비스퀴소스로 만들어서 쓴다. 맛이 깊고 풍성하다. 대신 식으면 비린 맛이 도드라져서 까다로운 소스이기도 하다. 대하로 새우장을 만드는 것도 한때 유행이었다. 살아 있는 대하를 깨끗하게 씻어서 양념을 넣어 끓여 식힌 간장에 담가서 잠깐 숙성하여 먹는다. 짭조름한 간장게장 양념과 동일하다. 이른바 밥도둑이 된다.

서해안 출신 분들에게 들으니, 회로도 많이 먹었다는 새우다. 껍질을 통째로 벗기고 장을 찍어 먹었다. 보통 보리새우나 독도새우(속칭 닭새우와 도화새우를 총칭하는 고급 새우)가 남해와 동해의 고급 새우로 보는데, 서해안에는 대하가 있다.

대하는 한철에만 나오므로, 다른 계절에는 타 어종을 잡는 어선이 잠깐 대하 잡이 배로 변신한다. 대하가 잘 잡히면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어민의 관심이 많지만, 그만큼 잡히는 양도 적어서 더욱 귀한 놈이기도 하다. 옛날엔 말려 두고 주요 잔치에 쓰기도 했고, 궁에 진상하는 품목이기도 했다. 말린 채로 진상하기도 했고, 늦가을에 잡히는 놈은 생물로도 올렸다고 한다.

66

대하는 주로 자연산으로 잡힌다.

양식을 하는 건 외래종인
‘흰다리얼룩새우’다.

대하가 잘 잡히면 큰돈을 벌 수 있지만
그만큼 잡히는 양도 적어서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곤 한다.

99

대하처럼 큰 새우는 음식의 재료이면서 동시에 약성이 있다고 봤다. 그 정도로 옛날엔 특별한 가치를 지닌 해물이었다. 물론 요즘도 결코 싸지 않다. 배불리 먹자면 지갑을 크게 열어야 한다.

모양은 같아도, 국산과 수입산이 있는 대하

이제 대하 양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 흰다리얼룩새우의 유입이 큰 몫을 했다. 이놈은 외래종인데, 크기도 크고 맛도 대하랑 제법 비슷하다. 서해안에서 대하 축제를 하는데, 이 새우를 주로 쓴다. 처음에는 외래종이라는 걸 굳이 밝히지 않고, 그냥 큰 새우라는 뜻으로 대충 대하라고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요즘은 흰다리얼룩새우라는 걸 밝히고 판다. 구별법이 인터넷에 나오는데, 별 거 없다. 살아 있는 건 그냥 흰다리얼룩새우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대하는 살려서 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흰다리얼룩새우는 원래 중남미가 본고장이다. 국내에서 양식하는데, 수입도 꽤 한다. 수입품은 대개 냉동으로 들어와서 중식을 비롯한 각종 요리에 쓰인다. 이 새우가 한국에 토착화된 양식종이 된 것은 병에 강하고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이다. 새우 양식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데, 한국은 흰다리얼룩새우가 주종이다. 이 새우는 2004년 처음 한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듬해 양식에 성공했고, 서해뿐 아니라 일부 남해지역에서도 양식한다.

그런데 자연산 대하라고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도 수입이 있다. 인도에서 들어오는 속칭 바나나새우다. 자연산 대하라고 팔면서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쓰지 않았다면 이 새우일 가능성이 높다. 새우 하나 먹는데도 따져야 할 것도 많고 참 번거로운 일이 많다.

어쨌든 제철 만난 대하. 값은 좀 나가지만 한 철의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란다. 기울은 짧다. 특히 대하가 나오는 가을은 더 짧다. 자칫 늦장을 부리면 대하는 금세 시장에서 사라진다.



동화 부럽지 않은 행복

루원시티조성 현장 김영표 프로 가족

결혼 10년 차 부부, 김영표 프로와 아내 오성은 씨.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10년째 보는 얼굴이지만 각자의 눈엔 자신의 배우자가 여전히 멋지고 예쁘다. 그런 엄마, 아빠를 똑닮아서일까. 김효겸(12), 김유겸(10), 김수아(8) 삼 남매도 서로를 아끼고 챙길 줄 아는 우애를 지녔다.듬직한 첫째와 장난기 넘치는 둘째, 애교 많은 셋째의 구김살 없이 밝은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흐뭇하기만 하다. 이만큼의 행복, 이대로만 지속된다면 더 바랄 게 있을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동화 속 이야기 부럽지 않은 그들의 일상.

글 편집부 사진 황원



돈독한 우리 가족, 남다른 우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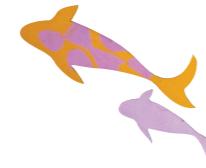
인천 송월동 동화마을은 김영표 프로 가족이 종종 놀러 가곤 하는 나들이 장소 중 하나다. 이미 여러 번 와본 곳임에도 아이들은 들뜬 기색이 역력하다. 동화 속 캐릭터로 꾸며진 조형물이 보이면 앞 다퉈 우르르 달려가 저마다 독특한 포즈와 익살맞은 표정을 짓는다. 동화 벽화 앞에서도 신이 난다. 흥부와 놀부의 한 장면을 그린 벽화가 눈 앞에 펼쳐지자 아이들은 도깨비방망이를 쥐려 하고 금은보화를 품에 안는 포즈를 취한다. 둘째 유겸이는 포토존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조형물이든 벽화든 눈에 띄면 일단 포즈를 취하고 본다. 사진 찍히는 법을 안다는 듯.

첫째와 둘째, 둘째와 셋째 각각 두 살 터울인 삼 남매는 체격의 차이만큼이나 성향도 제각각이다.

"큰 애는 성숙하고 동생들을 잘 돌봐요. 매일 아침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줄 정도로 집안일도 잘 쟁기고요, 듬직하죠. 둘째는 육상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발바닥에 가시가 붙어 있는 것 같다고 할 만큼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개구쟁이고요. 막내는 집안에서 애교 담당이에요. 천상 여자라고나 할까요."

김영표 프로와 오성은 씨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의 한 현장에서 만났다. 현장 일을 수행하는 김영표 프로의 업무 특성상 이사를 하는 일이 잦았고, 현재 인천에 둑지를 턴 지는 2년 정도 됐다.

"현장을 오가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친구도 잘 사귀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남매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고."



놀 땐 영락없는 아이들

어느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아이들의 발걸음이 멈춘다. 막내 수아가 장난감 칼에 꽂히고 만 것. “수아야, 안 돼. 난데없이 무슨 칼이야?” 엄마, 아빠의 만류에도 칼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면 댓발 나온 수아의 입을 어찌지 못할 것만 같다. 둘째는 그만 바람개비에 정신이 팔린 모양이다. 아까 기념품 가게를 지나칠 때만 해도 기념품에 눈길을 주는 유겸이를 어른스럽게 말렸던 첫째 효겸이마저 장난감 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눈치다. 결국 아이들은 저마다 장난감을 손에 쥔 채 의기양양하게 가게를 나선다.

효겸이와 수아는 칼싸움에 여념이 없고, 유겸이는 바람개비를 쥐고 쉴 새 없이 뛰어다닌다. “저는 칼보다 이게 더 좋아요.” 왜냐고 물으니 유겸이는 “엄마가 칼을 싫어해요”라며 쌩하니 달려간다. 정말 발바닥에 가시가 붙어 있는 건 아닐까.

평소에도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자주 한다는 김영표 프로. 현장 일이 바쁘긴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족과 시간을 자주 보내려 한다. “이곳 동화마을은 물론이고, 월미도나 계양산 장미원도 자주 가요. 장미원에 꽃마루라 해서 꽃구경하기 좋은 곳이 있는데 아이들도 좋아해요. 강화도도 많이 다녔고요.”

동화마을 나들이에 신난 건 아이들만이 아니다. 이번 가족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섭외 전화를 받고 김영표 프로는 떨 듯이 기뻤다.

“한라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네요. 온가족이 사보 촬영을 하게 되니 새삼 감회가 새로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가족사진을 찍게 되서 정말 잘됐다 싶어요. 다섯 명이서 셀카봉 이용해서 찍으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매번 지나가는 분에게 부탁하기도 번거롭고.(웃음)”

전주 현장에서 만난 인연, 그리고 가족

촬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부부가 단둘이 카메라 앞에 섰다. 카페 테라스에서 먼 곳을 향해 시선을 두고 나란히 선 부부. 그런 연출에 응해야 하는 순간이 못내 어색하긴 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울 따름이다. 서글서글하면서도 들판한 인상을 주는 김영표 프로와 언제나 밝고 쾌활한 미소를 머금은 오성은 씨는 연애 초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김영표 프로는 전주 현장에서 만난 아내와 사내 비밀 연애를 하던 당시의 즐거움을 잊을 수 없다. “전주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아내가 경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동료 직원의 돌잔치에 다녀오는 길에 차를 함께 타게 되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됐죠.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자연스레 사귀게 됐어요. 당시에



MINI INTERVIEW



김영표 프로 — 건강이 제일이죠. 첫째가 아토피를 앓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치료해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더불어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라고요.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아내와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내 오성은 씨 — 남편 곁에서 내조를 잘하는 아내이자 아이들을 잘 돌보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맞벌이를 하느라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일하는 엄마를 배려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 아들 김효겸 군 — 저는 원래 다른 사람 사진 찍어주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찍히는 건 싫어해요.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가족사진 찍으니까 재미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보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 김유겸 군 — 가족들과 놀러 나가는 건 언제나 즐거워요. 전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곳에 놀러 가서 가족사진 많이 찍으면 좋겠어요.



막내딸 김수아 양 — 온 가족이 다 함께 놀러 나오니까 행복해요. 오빠들이 잘 놀아주고 생겨줘서 좋아요. 엄마, 아빠도 더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현장 지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한동안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아내가 예쁘다는 등 자꾸 입에 올리니 결국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부부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히 애틋하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다.

“전화 통화를 정말 많이 해요. 집에 가면 아이들 돌보느라 서로 정신이 없으니 들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오성은 씨도 옆에서 거둔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나 출근해’ 하고 전화해요. 저희가 맞벌이인데 남편이 먼저 출근하거든요. 그날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점심에도, 퇴근할 때도 통화해요. 밥은 먹고 올 건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죠.”

촬영이 마무리되자 옷을 갈아입고 정리하느라 모두가 분주한 틈에서 첫째 효겸이는 의젓하게 동생들을 챙긴다. 복작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김영표 프로는 기대치가 남다른(?) 몇 가지 소망을 덧댄다.

“첫째는 여행가이드가 되면 좋겠어요. 자상하고 설명을 잘하거든요. 둘째는 운동을 잘하니까 앞으로 멋진 운동선수가 되길 바라요. 막내는 치과의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둘 때 청진기를 잡았거든요.”

한껏 유쾌한 나들이를 끝낸 다섯 식구가 줄지어 손을 잡고 걷는다. 그들은 오래도록 행복할 것이다. 동화 속 주인공처럼.

철강과
유리,

세로의 건축을 실현하다

“자,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에 탑을 쌓자. 탑 꼭 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 우리의 이름이 날려 흩어지지 않게// 하자.”

『구약』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건설에 얹힌 이야기의 일부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액청(천연 탄화수소 화합물 전체를 일컫는 말로 당시에는 송진이 유력함)을 사용해 단단하고 높은 건축물을 지었다. 신은 이를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 여기고 인간들이 서로 다른 부족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벌을 내려 뿐뿐이 흘어지게 했다는 게 이야기의 줄거리다.

글 박선숙 경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출처『퇴근길 인문학 수업 : 전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건축물 세로 화장의 증거, 파리의 에펠탑

『구약』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문명의 탄생 후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실제 지었다고 전해지는 바벨탑은 세로의 건축을 시도한 첫 번째 사건으로 기억된다.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종교 교리는 사회규범이자 가치관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근대 이전까지 높은 건물을 세우는 일은 신을 거역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건축물이 권력의 상징이던 중세시대에 가장 높았던 건축물이 교회 첨탑 정도에 불과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본주의가 부활한 르네상스시대를 지나 과학기술 혁명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산업혁명 이후부터 건축물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은 건축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데, 고전주의·양식주의·자연주의 및 구조주의 포스트모던·포풀리즘 등의 사조들이 지나가

면서 근대화로 넘어가게 된다. 상업과 교통, 그리고 물류의 발달로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공장, 대규모 상점, 물류창고 등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게 됐고 금융과 행정 등 공공 시설과 더불어 주택단지도 들어섰다.

사회 변화는 건축의 내용과 방법, 기술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용도와 기능에 맞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과거와 달리 대형 건축물이 건설됐으며 빠른 속도로 산업화 도시를 형성하게 됐다. 시야에 들어올 정도의 차분하고 단정했던 높이와 면적에서 벗어나 더 크고 더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에 세워진 300미터 높이의 에펠탑은 건축물의 세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파리 마르스 광장에 건설된 에펠탑은 당시 프랑스의 기술적 진보의 상징이 된 구조물로, 총 1만 톤에 달하는 철골로 세워졌다.



영국 런던 수정궁의 내부 모습

높이의 건축을 가능케 한, 강철과 유리

높이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데는 강철과 유리 등 재료공학적 기술 발전의 힘이 컸다. 이 두 가지는 현대건축의 구조와 형태를 실현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기술의 발달로 탄소를 줄인 강철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건축물 전면에 유리를 세우는 현대적 건축공법이 개발되면서 조립식 건설의 시대가 열렸다. 무엇보다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도시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됐다.

강철의 대량생산은 교량 건설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다. 교량 건축의 주재료였던 목재나 돌 대신 강철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곡선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흔들림을 완충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늘리자 전체 교량의 길이가 늘어났다. 더욱이 현수구조, 커튼월 공법 등 건축공학의 거듭된 발전으로 철강을 이용한 고층건물의 설계가 수월해졌다. 아울러 유리가공기술이 발전하면서 19세기 초부터 거대한 판유리를 생산할 수 있었다.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고딕 양식의 성당 내부를 장식한 스테인드글라스와 비교해 보면 유리가공기술의 혁신을 가늠해볼 수 있을 듯하다.

19세기 유리와 강철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은 영국 런던에 세워진 수정궁이다. 수정궁의 실내 면적은 축구장 18개를 합쳐놓은 크기였다. 벽돌, 석재 등 전통적인 건축 소재를 쓰지 않고 유리와 강철 등 첨단 소재와 선구적인 설계 공법이 축약된 건축물로 기술혁신의 상징이기도 했다. 건축물의 높이에 숨겨진 기술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엘리베이터 기술이다. 2,200년 전 아르키메데스가 시칠리아에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기구를 최초로 만들었지만, 실제 높이의 건축을 실현할 만큼 안전성을 확보한 시기는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부터다. 엘리베이터 기술은 세로의 건축을 실현하는 한편,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기도 했다.

태풍의 소용돌이가

빙빙 도는 이유



최근에 유독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이 많아진 기분이다.
특히 여름과 초기을 한반도를 지나는
태풍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다.

보통 태풍이 하루에 발산하는 열에너지가

1년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총 전기에너지(2009년 기준)의

50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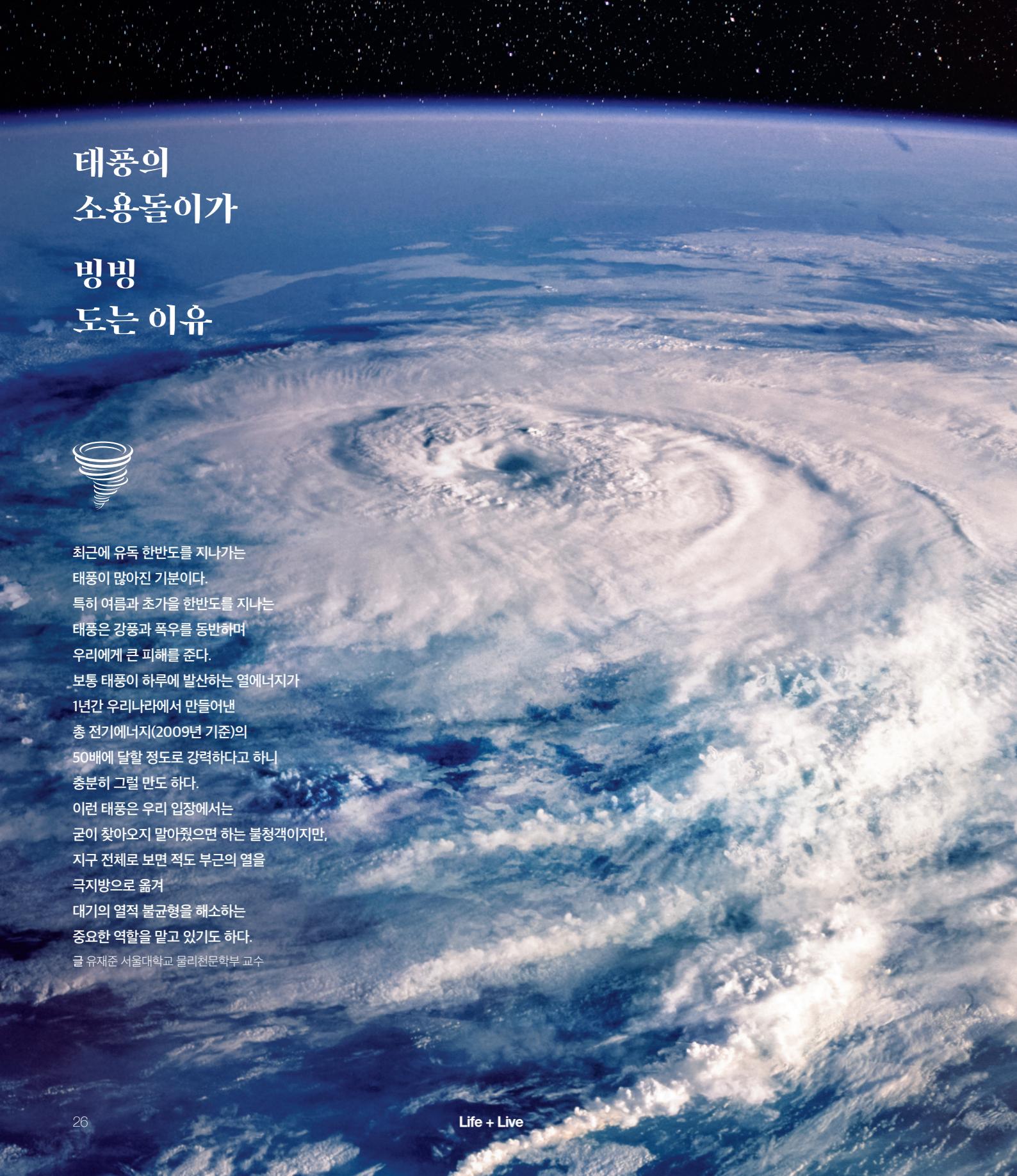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태풍은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찾아오지 말아줬으면 하는 불청객이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적도 부근의 열을

극지방으로 옮겨

대기의 열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글 유재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보이지 않는 가상의 힘이 태풍의 소용돌이를 만든다

태풍의 움직임을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소용돌이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 태풍 중심의 낮은 기압이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일 때 작용하는 힘은 저기압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작용한다면 바람의 방향은 태풍의 중심을 향해야 한다. 그런데 태풍의 바람은 중심을 향해 곧장 들어가지 않고 빙빙 돌면서 들어간다. 왜일까?

먼저 바람의 방향을 운동 법칙의 관점에서 한번 따져 보자. 이들 바람의 방향은 기압차에 의한 힘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기상도에 나온 공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기압차에 의한 힘의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설명하려면 공기에 직접 작용하는 기압차에 의한 압력 외에, 오른쪽으로 휘게 하는 코리올리의 힘이나 부르는 '가상의 힘' 또는 '가짜 힘'이 추가로 필요하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코리올리가 정의한 코리올리의 힘을 '가상의 힘'이라 부르는 이유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가속도와 힘의 관계를 정할 때 설정한 전제 조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뉴턴, 관성기준계에 따른 힘의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1법칙을 설정하다

뉴턴은 제1법칙에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제시했다. 이 법칙에는 모든 운동을 관측하고 이해하는 기본 틀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다. 예를 통해 알아보자. A와 B, 두 관측자가 기차역에 들어선다. B는 기차역에 서 있고, A는 막 출발해 속도를 높이는 기차에 올랐다. B의 기준계에서 바라보면 기차역에 작용하는 힘은 없지만 기차에는 가속도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기차에 올라탄 A의 좌표계에서 관측하면 기차는 정지해 있고, 대신 기차역이 가속을 하며 멀어진다.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르면 정지해 있는 기차에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고, 가속하면서 멀어지는 기차역에는 힘이 작용해야 한다. 그런데 원가 이상하다. B 기준계의 기차와 A 기준계에서 본 기차역은 무게가 다른데도 똑같은 가속을 하고 있는 셈이다. 뉴턴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관성기준계에서 측정했을 때'라는 전제조건을 제1법칙에서 설정하고,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정한 것이다.

66

회전기준계에서 느끼는
'지구가 자전하는 힘'이
태풍의 궤적을
회전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99

회전기준계에서 느끼는 지구가 자전하는 힘이 코리올리 효과를 만든다

관성기준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모두 비관성계로 칭한다. 여기서 관측된 모든 운동은 가상의 힘, 즉 가짜 힘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가상의 힘은 회전기준계에서 나타나는 원심력이다. 놀이동산 관성계에서 보면, 관성계의 뉴턴 법칙이 정확히 들어맞지만 회전기준계에서 보면 회전목마 위의 관측자가 본 목마는 정지해 있어 가속도와 힘의 합력 모두 '0'이지만 실제로는 목마 중심으로 당기는 힘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회전기준계와 같은 비관성계에서는 정지한 물체에 대한 관성의 법칙을 유지하기 위해 '원심력'이라는 가상의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핵심 사례를 살펴보자. 대포를 띠난 대포알에는 지구 중심을 향하는 중력 외에는 외부에서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전기준계가 아닌 놀이동산 관성계에서 중력 방향의 운동을 빼고 보면 대포알의 진행 방향은 직진 운동이다. 그런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판 위의 관측자가 본 대포알의 운동은 항상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대포알이 직진하는 동안 회전판이 그 만큼 회전해서 왼쪽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이 비관성계의 힘을 코리올리의 힘이라 한다. 이 힘은 회전판의 회전속력과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한다. 그 때문에 수백 또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장거리 대포나 미사일을 쏘 때는 코리올리의 힘을 고려해 비행경로를 계산하곤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람의 경로나 태풍의 소용돌이 움직임을 볼 때 회전하는 것처럼 궤적이 보이는 것 또한 코리올리의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편지

그대로부터 가장 먼 곳의 풍경들

잘 다져놓은 신작로처럼, 넓은 대지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물만이 마치 신전에 바친 꽃다발처럼 광활한 대지를 수놓았죠. 비행기도 석양과 함께 그렇게 몸을 낮춰 갔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공항, 한국과의 시차는 정확히 12시간. 한국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지금 반대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곳이죠. 그대로부터 가장 먼 곳의 여정,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아르헨티나.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여행 아닌가요.

글·사진 김동우(여행 칼럼니스트)

스위스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바젤로체 전경

Dear. 한라인

공항을 빠져나온 버스가 도심으로 들어섰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야경은
휘핑크림을 듬뿍 올린 카페모카처럼 달콤했죠.
차가운 공기가 전해주는 촉감은
한국 늦가을처럼 고즈넉했고,
고풍스러운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은 따스했어요.
한산한 거리 어디쯤에서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고 있을 것만 같은 거리.
밤거리처럼 짙은 빛깔의 와인과
땅고가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 여정은
그렇게 잔잔하게 시작됐어요.

한라인, 그대로부터

가장 먼 아르헨티나로 같이 떠나 봐요.

From. 김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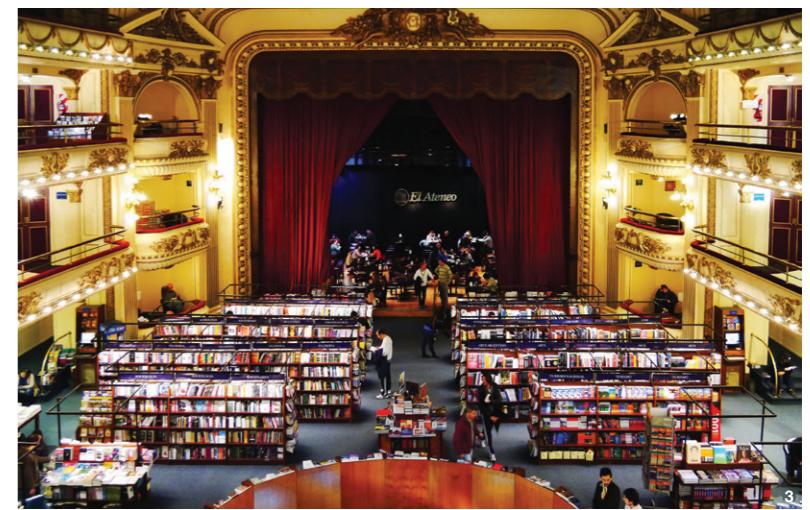


사람보다 소가 많은 나라

사실 전 '도시 불감증' 여행자예요. 그런 저에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완벽한 여행의 변주였어요. 마치 방향을 알 수 없는 숲을 헤매다 '스마프 마을'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죠. 와인과 소고기, 음악과 춤이 한 데 어우러진 최고의 도시가 여기더라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예요.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죠.

슈퍼에 들어가 와인 가격을 보곤 그만 비명을 지를 뻔 했어요. 한국에서 2~3만 원짜리 와인이 글쎄 우리 돈 몇 천 원밖에 안하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와인 생산국이에요. 특히 멘도사에서 생산하는 말벡(Malbec)은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품종이죠. 여기선 몇 천 원짜리 와인이라고 쉽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마시는 와인과 똑같은 와인이니까요. 여행 처음부터 와인하면 칠레만 생각하고 있던 상식이 단박에 무너지더군요.

하나 더 놀라웠던 건 붉은 레드 와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소고기 가격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아르헨티나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이 사는 나라예요. 과거에는 인구의 4배에 달하는 소가 드넓은 초원을 채우고 있었는데 지금도 국민 1인당 2마리의 소가 풀밭을 어슬렁거린다고 해요. 마트에 가서 소고기 가격을 보니까 꽃등심 600g이 우리 돈 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놀라움 그 자체죠. 그런데 으레 우리가 먹던 마블링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소들을 전부 방목하기 때문에 마블링이 끼질 않아요. 조금 슬픈 이야기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해산물 시장은 초라하기 짝이 없죠.



엄마 찾아 삼만리의 배경

아르헨티나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1998년 한국에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가 밀어닥쳤을 때 국민 모두가 국가부도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죠. 반면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IMF에 손을 벌린 일이 수차례나 된다고 해요. 심지어 지급유예를 선언한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혹시 20세기 초까지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었던 거 아세요? 소고기 수출로 막 대한 부를 축적하며 프랑스·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력을 끌어올렸어요. 이탈리아·스페인보다도 훨씬 잘 살았죠. 한때는 경제 순위 10위에 오른 적도 있었어요. 만화영화 '엄마 찾아 삼만리'에서 마르코(주인공)의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나는 장면은 당시 상황을 잘 보여 주죠.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로(왕복 16차선, 폭 144미터)였다는 '7월 9일 거리'(Avenida 9 de Julio)에서 찬란했던 아르헨티나의 과거를 읽어 내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길에는 에바 페론의 대형 상징물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건립 400주년을 기념해 1936년 세워진 높이 72미터의 오벨리스크(Oobelisco)가 자리하고 있어요. 7월 9일 거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남미의 파리로 불리던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 짐작되죠. 그랬던 나라는 포퓰리즘 정책 등이 난무하면서 점점 힘을 잃어 가기 시작해요.

1 194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안 페론의
부인 에바 페론 조형물.
'에비타'(Evita)란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녀는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이란
평가와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던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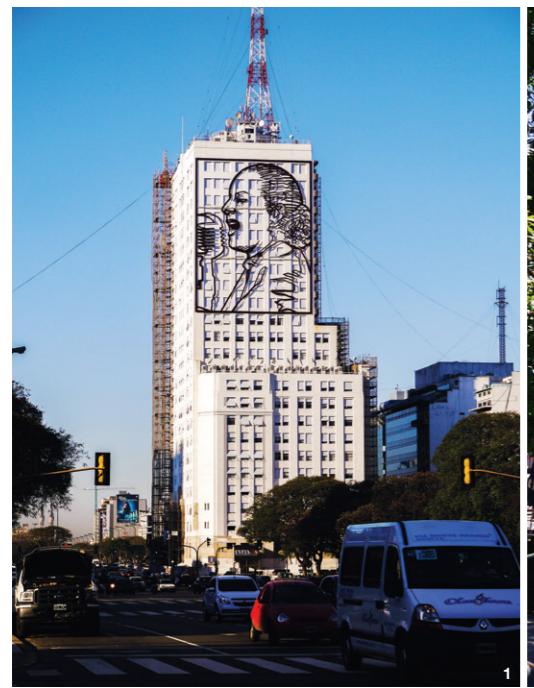
2 아르헨티나 땅고의 발생지
'라 보카'는 형형색색 페인트로
칠한 집들이 인상적인 공간이다.
과거 배에 칠하고
남은 페인트를 가지고
조금씩 색을 입힌 것에서
시작된 풍경이다.

3 엘 아테네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보고, 먹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이 참 많은 나라예요. 한정된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중에서 한 서점을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엘 아테네오(El Ateneo)라는 곳인데요, 여긴 원래 1912년 문을 연 1,050석 규모의 오페라 극장이었어요. 한때는 땅고의 대부 까를로스 가르델(Carlos Gardel)이 공연을 했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죠. 그러나 엘 아테네오는 부침을 거듭하며 지난 2000년 경영 위기로 문을 닫게 돼요. 그런데 마침 한 출판사가 이곳을 임대하면서 3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유명 배우가 유려한 몸짓으로 수놓던 무대는 멋진 카페로 바뀌었고, 서점 곳곳에 남아 있는 공연장의 아름다운 장식은 책을 더 빛나게 하고 있어요. 황금빛 치장을 한 서점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죠. 세기의 명작도 이곳에선 숨을 죽일 것만 같은 분위기예요.

양쪽으로 휘장이 쳐진 무대에 올라 봤어요. 서점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말백 한 잔을 주문했죠. 붉은 와인이 화려한 조명을 받아 보랏빛으로 변하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에서 맛보는 와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밀롱가에서 즐기는 땅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땅거미가 짙어지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탱고, 즉 땅고를 즐기려 가봐야죠. ‘땅고’란 단어는 ‘가까이 다가서다’, ‘만지다’, ‘마음을 움직이다’란 라틴어가 어원이에요. 땅고는 유럽 등지에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음악에서 시작됐죠. 아프리카 노예의 춤 칸돌베, 쿠바 선원의 무곡 아바네라, 아르헨티나 목동의 노래 플라야다스가 섞이면서 탄생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땅고 음악은 보통 바이올린 두 대 그리고 피아노, 더블베이스, 반도네온 등의 협주로 이뤄지죠. 땅고의 춤사위는 항구 도시 라 보카(*la Boca*)에서 일하던 선원들의 춤이 원류인데 20세기 초반 아르헨티나의 부흥기와 함께 유럽과 북미지역으로 퍼져 나가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돼요. 그러다 아르헨티나로 역수출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죠. 땅고 발생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래된 항구 라 보카라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발생지를 두고 아직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땅고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기도 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땅고를 보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현지인들이 퇴근

1 밀롱가에서
땅고를 체험하는 경험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에서
꼭 해봐야 할 것 중 하나다.

2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만들어 낸 빙하가
녹아 신비로운 푸른 빛을
띠고 있다.

후에 편하게 와서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곳들이에요. 밀롱가(*Milonga*)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반짝이 옷차림을 한 무희들이 춤추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간 곳은 꾸미지 않은 일상복 차림의 남녀가 복고풍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었어요. 20대 청년에서부터 60대 장년까지 연령대도 다양해요. 남의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춤답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땅고는 마음으로 춤’이란 말이 실감 나죠.

파타고니아의 아름다움을 찾아

아르헨티나가 매력적인 이유는 유서 깊은 역사, 문화와 더불어 마치 알프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림 같은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 파타고니아라 부르는 남부 지방은 살아 있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보석 같은 곳이죠.

스위스 이민자들이 세운 ‘산 카를로스 데 바릴로체’(*San Carlos de Bariloche*)부터 남쪽 끝 우수아이아까지를 흔히 파타고니아 지방이라고 해요. 파타고니아란 명칭은 마젤란 원정대가 거인족이라고 묘사한 원주민을 가리키는 ‘파타곤’(*Patagon*)이란 말에서 왔어요. 당시 스페인 사람들 평균 키가 155센티미터 정도였는데, 파타곤은 무려 180센티미터였다고 하니, 명칭의 유래가 이해가 되죠.

파타고니아의 대명사는 바람이에요. 최대 풍속이 초속 60미터를 넘는 일도 많아요. 보통 초속 40미터가 넘으면 사람이 날아간다고 하죠. 이 때문에 파타고니아는 ‘폭풍우의 지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해요. 파타고니아 최고의 여행지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Perito Moreno Glacier*)에요. 모레노 빙하는 지구 온난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최대 2미터까지 몸집을 키워가는 중이래요. 여기다 빙하 위를 걸을 수 있는 코스가 갖춰져 있어 여행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죠.

3 파타고니아 지방에 있는
모레노 빙하에선
빙하 위를 걸어 볼 수 있는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4 모레노 빙하 투어는
파타고니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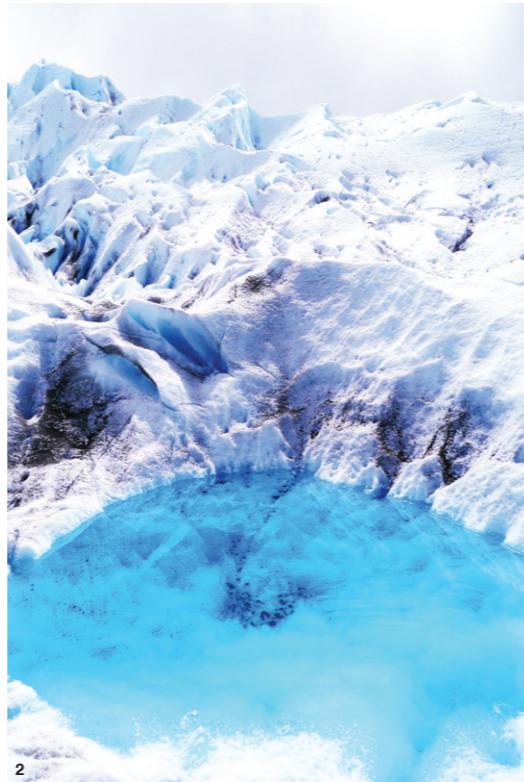
처음 모레노 빙하를 본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빙하가 희미하게 보이는 열은 숲길을 나오면 머리 위로 아르헨티나 국기가 나부끼는데 그 너머로 하늘색 빛을 띠고 있는 어마어마한 덩치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설산의 곱고 새하얀 빛깔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빙하의 영롱한 비취색은 난생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마치 하늘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만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빙하는 산을 넘던 수증기가 얼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런 빙하를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가이드를 따라 빙하 트레킹에 나섰어요. 빙하 위를 ‘뽀드득, 뽀드득’ 걷다 작은 빙수가 담긴 웅덩이를 만났어요. 하늘색 빙수로 뜨겁게 달아오른 몸을 식혔죠. 빙수가 내 몸속을 푸른빛으로 물들일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셀 수 없는 시간이 몸속으로 들어와 서서히 열기를 식혀주었어요. 웬지 시간을 마시는 듯한 참 묘한 느낌….

아르헨티나, 그대로부터 가장 먼 곳의 풍경에는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이 담겨 있어요. 생애 마지막 여행지를 선택하라면 주저 없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을 만큼 말이죠.

Travel Tip

아르헨티나는 은행보다 사설 환전소 환율이 높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듯 무작정 은행에서 환전하는 건 피해야 할 일이에요. 사설 환전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택시를 타고 내릴 때도 급적이면 큰돈을 내는 건 피해야합니다. 거스름돈에 위폐를 끼워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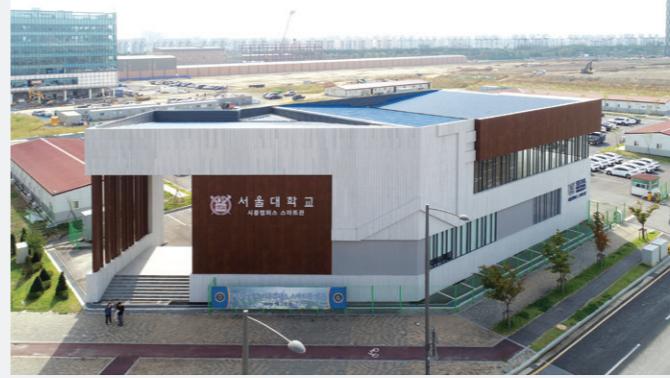
Start Together!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현장

Look Into

미래
스마트라이프를
실현하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지켜본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물며 그 역사의 기틀을 잡고 주춧돌을 세웠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듯. 지난 9월 스마트관이 문을 열면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스마트관은 캠퍼스 조성을 계획한 지 12년 만에 처음 준공된 건물로, 2013년부터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 사업에 참여해온 (주)한라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기도 하다. 스마트관을 직접 찾아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비전과 미래를 직접 확인했다. 또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학생과 임직원들의 생활공간들을 미리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 편집부 사진 고인순



- 2007. 11
서울대학교 장기 발전계획(2007~2025)을 통한 새로운 캠퍼스 조성계획 추진
- 2010. 02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 MOU 체결
- 2011. 12 - 2014. 03
서울대-시흥시, 기본협약체결
- 2016. 08. 22.
서울대-시흥시-(주)한라/배곧SPC,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
- 2017
시흥캠퍼스 6대 기본방향 설정
- 2017. 12. 07.
시흥캠퍼스 선포식 및 미래도시 모빌리티 조성 협약 체결
- 2016 - 2019
우선 추진 건축물 착공
- 2017 - 2019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2019. 09. 23.
서울대 시흥캠퍼스 스마트관 개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는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66만m² 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연구 시설이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양성 및 첨단연구개발 활동이 펼쳐지는 미래형 공공캠퍼스다.

최근 개관한 스마트관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조성과 추진 현황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됐다. 1층에는 시흥캠퍼스의 비전과 미래, 캠퍼스 생활, 마스터 플랜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으며, 2층은 기숙사 견본시설이 설치돼 있다.
(주)한라는 지난 2013년 9월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내의 대단지 아파트 조성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공사를 맡았다. 2016년 초 이미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6,700가구 분양을 완료했으며, 2017년에 순차적으로 입주를 마무리 지었다.

타임라인으로 지나온 역사 바로 알기

스마트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계획이 결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타임라인을 접하게 된다. 2016년 8월 22일 서울대학교와 시흥시, (주)한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본격적인 설립을 알렸다. 이후 2017년에는 △스마트 캠퍼스(미래형 교육환경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친환경 캠퍼스) △사회공헌 캠퍼스(지역 및 거점 대학과의 교육협력을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견인) △기초 과학육성 캠퍼스(기초과학과 인문, 사회과학 학제 간 연구 진흥) △융·복합 연구 캠퍼스(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복합 연구와 국가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 양성) △평화통일 캠퍼스(통일된 평화 한국을 이끌 차세대 미래 지도자 양성) △ 행복 캠퍼스(지역사회와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 등 시흥캠퍼스의 6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스마트캠퍼스로 공식 선언하는 선포식과 서울대와 시흥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이 함께한 미래도시 모빌리티 조성 협약이 체결됐다. 이와 함께 부지 내부에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던 건축물도 하나씩 착공했다. 가장 먼저 대우조선해양연구소의 서울대 시험수조가 준공돼 이미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주거동과 교육동, 미래 모빌리티 연구동, 산학협력동,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동 등이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홀로그램으로 보는 실감 나는 미래도시 이야기

서울대 시흥캠퍼스에는 미래의 핵심 IT기술 중 하나인 홀로그램이 곳곳에 적용돼 있다. '홀로그램 시어터'에서는 캠퍼스가 완공된 뒤 시흥캠퍼스를 비롯한 시흥시 일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관 한 쪽에 있는 홀로그램 글래스를 쓰면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왼쪽부터) 2층에 들어서 있는 서울대 교직원들과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주거공간 견본주택,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기대하는 방문객들의 응원 메시지, 홀로그램 글래스를 쓰고 IT기술을 체험해 보고 있는 방문객들.

66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지켜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주)한라가 주축이 되어 조성할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

99

상상의 나래를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홀로그램 세상처럼, 서울대학교는 앞으로 시흥캠퍼스에서 새로운 도전의 장을 더욱 원대하게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기초과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캠퍼스 연구 단지를 조성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개발과 상용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인공지능 자동차가 모든 위험을 스스로 조율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이자 클린 시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대기업을 비롯해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협력을 약속하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꿈이 시흥캠퍼스에서 준비되고 있는 셈이다.

또 지능형 무인이동체 연구동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드론기술을 발전시키고, 대우조선해양과의 협업을 통해 마련한 미래해양공항 연구 클러스터에서는 친환경·고효율 선박개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인 스마트 선박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측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된 의료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유치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시흥캠퍼스에 조성될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는 서울대병원 연구진과 서울대학교가 연구와 진료를 함께하게 되는 이상적인 모델로, 의료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미래기술을 선도하고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대 교직원들과 캠퍼스 내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마련,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해당 주거시설의 견본주택은 스마트관 2층에 들어서 있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일상이 되는 세상.



미래 시흥캠퍼스
라이프

09:15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예약한다.



09:30 자율주행버스에서 내린
뒤 퍼스널모빌리티를
이용해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09:45 교육동 앞 스마트 횡단보
도는 부주의한 보행자를
김지, 안전한 통행을 안내
해 준다.



09:55 스마트 강의실에서는 홀로
그램을 활용한 3D 교육이
진행된다.



13:00 안내로봇에게 길 안내
를 요청하니 헤매지 않고
근처 스마트도서관
을 찾을 수 있다.



13:30 스마트도서관 안내판에
서 비어있는 좌석을 확
인한 뒤, 열공!



19:00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
아가는 길,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치안서비스를 신청
했다. 드론이 주변을 감시
해 주고, 스마트가로등도
길을 밝게 비춰준다.

드론으로 날개 단

(주)한라 스마트 건설



2019 Halla Drone Day

(주)한라는

10월 24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라대학교에서
'Halla Drone Day'를 열고
(주)한라 직원들과 한라대 학생들에게
드론 교육을 실시했다.

드론 기술교육을 통해
자체 개발한 '드론측량 3D현장관리',
'드론VR 공정관리' 등
스마트건설 신기술들을 확대 적용하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에서는.

글 편집부 사진 고인순



드론 직무교육으로 이론 다지기

지난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 건설자동화 완성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국내 건축 시장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중에서도 드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한라 역시 일찌감치 드론 담당자를 두고, 현장별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드론 활용도를 높여왔다. 실제로 'Halla Drone Day'에서도 오전 내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직무교육을 시행, 변화하는 스마트건설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주)한라 직원们 또한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새롭고 다르게' 변화하려는 회사의 움직임에 적극 호응했다.

(주)한라의 드론 담당자인 현제호, 최지환, 조정덕 프로가 강사로 나선 드론 직무교육은 각각 △스마트건설 드론 운영 △드론 VR △드론 측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드론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됐다. 자료용 영상 촬영을 비롯해 측량, 토공량 측정, 시공현장 공정관리, 3D 모델링, 시설물 안전점검 등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드론 VR은 3D모델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 시시각각 변화하는 광범위한 현장의 모습을 드론을 활용해 촬영하고 데이터화하는 과정으



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장 조건과 인접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공사 진척 상황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현장 근로자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드론을 이용한 측량 또한 건설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했다. 드론은 토지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시간을 크게 줄여줌으로써 적은 시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전체 공기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날 강사 중 한 명 이었던 조정덕 정보기획팀 프로는 "건설과정은 모두가 중요하지만 특히 작업계획 수립은 시작점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며 "이 때 드론을 활용하면 주변 지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좀 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특강으로 시장 트렌드 파악하기

'Halla Drone Day'에서는 (주)한라 직원들과 한라대 학생들을 위한 특강도 진행됐다.

첫 번째로는 드론 3D모델링 스타트업 카르타의 최석원 대표가 '드론 3D모델링 기법활용 및 동향'이라는 주제로 드론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과 건설현장에서 드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시공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시범적용, 검증 작업에 한창이다. 현재는 어깨보강로봇과 허리보강로봇을 시험 중인데, 효과를 검증한 뒤 전체 현장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프로세스 로봇에게 시키는 RPA/AI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 해 안에 실무에 적용, 업무 효율 극대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최 프로는 “DT란,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기업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건설 산업의 스마트화를 (주)한라가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알찬 부대행사로 WIN-WIN 실현

‘Halla Drone Day’에는 강연 이외에도 ‘멘토-멘티 타임’, 드론 비행실습, 부스운영 등 알찬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멘토-멘티 타임’에서는 (주)한라 직원들로 구성된 11명의 멘토와 이들의 멘티가 된 38명의 한라대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멘토 1인당 3~5

최 대표는 드론을 ‘넓은 지역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내린 뒤 이를 건설 산업에서 드론 사용의 파급력이 큰 이유로 꼽았다. 건설 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건설업은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업계로, 성장을 또한 연간 1%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건설 드론의 경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드론을 스마트건설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특강 연사로 나선 (주)한라 정보기획팀의 임지혁 팀장과 최은숙 프로는 각각 ‘4차 산업혁명과 건설 현장의 DT’와 ‘(주)한라의 DT 노력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임지혁 팀장은 ‘건설업의 DT 노력’과 관련해 “△왜 해야 하는지 알아야 간절함이 생긴다 △건설업도 ‘새롭고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디자이너 시작으로 치밀하게 ‘상황과 사람’을 관찰해야 한다 △고객·소통·성과지향의 애자일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모든 일의 마지막은 실천이다”라는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최은숙 프로는 “건설 산업은 변화가 느린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라는 현재 360VR 시스템을 구축해 전사 오픈을 앞두고 있다. 프로그램이 안정된 뒤에는 내년 상반기 안에 360VR 시스템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



명의 토목공학과 학생들을 멘티로 배정해 오는 2월까지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온라인 연락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주)한라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을, 한라대 학생들에게는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조정덕 프로의 멘티가 된 정은정 학생은 “멘토 선생님에게 건설사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지 물어보고 싶다”며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질문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를 만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Halla Drone Day’의 하이라이트 행사는 운동장에서 진행된 ‘드론 비행실습’이었다. (주)한라 직원들과 한라대 학생들 모두 파란 하늘 위로 드론을 날려보는 실습을 했다. 특히 행사 당일 드론을 처음 접해본 한라대 학생들은 드론이 움직일 때마다 환호성을 질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들었다.

박병선 한라대 학생은 “건설 산업에 드론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미래의 건설인인 토목공학과 학생으로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익혀나가야 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Halla Dron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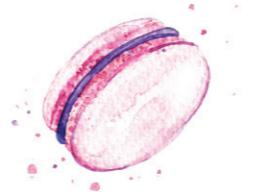
과자가 아니라 작품이다. 알록달록한 꼬꼬(Coque)에 크림치즈, 초콜릿 등의 필링(Filling)을 채워 넣고 연둣빛 사인 머스캣 포도알을 얹으니 보석같이 영롱하다. 한 입 베어 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황홀한 단맛은 두말할 필요 없을 테다. 두 명의 한라인이 도전장을 던진 시각과 미각으로 즐기는 예술, ‘프렌치 마카롱(French Macaron)’의 세계다.

글 편집부 사진 이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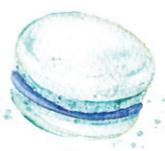
강사 유지나(수제 마카롱 공방 ‘아썸블리스’ 대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유혹, 마카롱 만들기



우리에겐 웬지 생소한 명칭인
마카로네쥬 과정은
꼬꼬 제작의 핵심이다.
완성한 반죽을
둥근 카드로 모아 주르륵 흘려보는
단순 작업이지만,
표면에 반지르르한 윤기를
부여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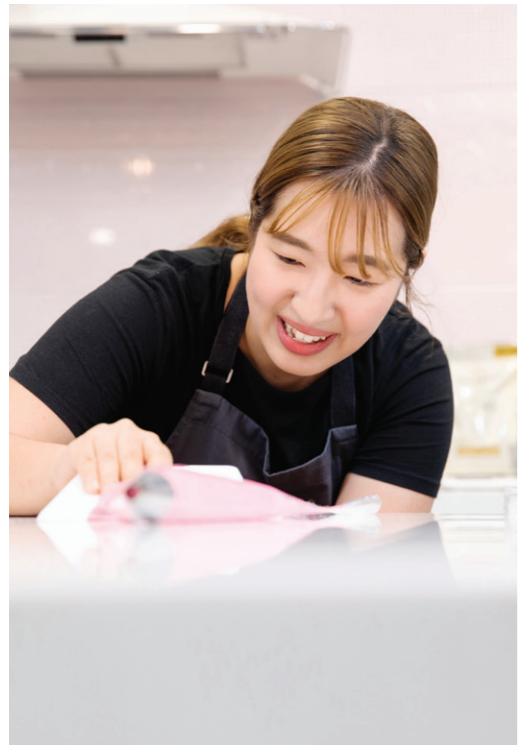


반지르르한 꼬꼬의 윤기, 마카로네쥬(Macaronage)가 비결!
사이좋게 서로 앞치마 끈을 매주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8월 나란히 입사한 동기란다. 이름마저 자매처럼 비슷한 김현진·김현희 주니어 프로가 밝게 미소 짓자 공방 내부가 덩달아 환해진다.

테이블 위에 차린 재료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두 사람이 직면한 우선 과제는 ‘껍질’이라는 의미의 마카롱 본체인 꼬꼬 만들기다. 먼저 달걀흰자를 거품기로 돌리다가 설탕과 난백 파우더를 넣고 단단한 머랭(Meringue) 상태에 이르도록 휘젓는다. 여기에 눈길을 사로잡는 컬러를 더하려면 식용 색소는 필수다. 양 조절만으로 충분한 분홍색을 택한 김현진 프로와 달리 파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야 하는 민트 색상에 푹 빠진 김현희 프로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색소를 배합해본다. 다행히 결과는 대성공이다. 그런데 원하는 빛깔에 만족하며 손가락으로 푹 찍어 먹어보는 그들이 동시에 웃는다. 예상보다 맹맹한 탓이다.

물론 감칠맛을 위해선 아몬드가루와 슈가 파우더의 활약이 절실하다. 두 가루를 곱게 갈고 체에 내린 혼합물을 풍신한 머랭 케케이 뿐만 다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옮겨본다. 이때 밀가루 치대듯 마구 뒤섞지 않도록 한다. 유분이 배어 나와 기름지게 뭉치거나 얼룩이 생길 수 있다.

우리에겐 웬지 생소한 명칭인 마카로네쥬 과정은 꼬꼬 제작의 핵심이다. 완성한 반죽을 둥근 카드로 모아 주르륵 흘려보는 단순 작업이지만, 표면에 반지르르한 윤기를 부여한다고, 이로써 찰기가 생기면 짤주머니에 넣고 오븐 팬에 깔아둔 유산지 위에 모양을 잡는다. 1cm 정도 위에서 직각으로 힘을 조절해 짜는 게 관건이다. 단순한 원형부터 하트, 조개, 곰돌이 등을 그려나가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지 두 프로의 얼굴에 어느새 웃음이 가득하다.



66

마카롱의 영롱한 빛깔에 반해서
이처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줄은
상상조차 못 했어요!

앞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먹어야겠네요.(웃음)

김현진 주니어 프로

99



이제 팬의 하단을 힘차게 팽팽 두드려 공기를 빼고 10분간 건조한 다음, 12분 동안 구워낼 차례다. 그러나 오븐이 일한다고 해서 마냥 쉴 수 없는 노릇이다. 서둘러 마카롱에 채워낼 필링 만들기에 돌입한 두 명의 프로들은 각각 레드벨벳 치즈 필링, 다크 초콜릿 가나슈를 맡아 집중했다. 미리 만들어둔 바닐라·솔티 캐러멜 버터 필링은 이와 더불어 풍성한 맛을 내줄 터다.

필링과 과일을 가득 채운 똥카롱의 탄생…마카롱은 꾸미기 나름!

따끈하면서 고소한 향이 사방에 퍼진다. 필링을 짤주머니에 부지 런히 채워 넣은 두 사람의 관심이 자연스레 오븐으로 향한다. 땅, 하는 알림음에 맞춰 등장한 주인공은 그간 마카롱 가게에서 익히 보아온 매끄럽고 바삭하면서 쫄깃한 그 꼬꼬가 맞다.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제 손으로 만들었는데 시중에서 파는 제품과 다르지 않아요!”

경이롭다는 듯, 꼬꼬를 하나 집어 든 김현진 프로가 장난스럽게 눈을 살짝 가리자 김현희 프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유쾌하게 웃는다. 20대를 공유하는 동기들의 즐거운 한때다.

그러나 여유도 잠시, 다시 손이 바빠진다. 필링을 끼워 넣으려면 한 쌍씩 짹을 맞춰야 한다. 종종 크기가 다른 게 나오기도 하나 아쉬워할 일은 아니다. 수제만의 매력인 까닭이다. 짤주머니로 안을 채우는 손길에 맵시 나는 마카롱이 하나둘 탄생한다.

최근 유행한다는 똥카롱(재료를 잔뜩 넣은 한국형 마카롱) 또한 빠질 수 없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해보랴. 욕심껏 부피를 늘리다 보니 과일까지 등판했다. 달달한 풍미의 끝판왕, 샤인 머스켓 포도다.

66

짤주머니에 꼬꼬 반죽을 넣고
정성 들여 짜다 보니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했어요.(웃음)
완성한 마카롱이요?
가족·친구와 함께 나눠야죠!

김현희 주니어 프로

99



“조개 모양 꼬꼬 사이에 동그랗게 필링을 두르고 샤인 머스켓을 끼워주면 진주를 머금은 듯 근사하죠. 꼭지 부분이 아니라 동그란 알이 정면을 향하게 배치해주세요.”

수업에선 포도를 활용했지만, 직접 만드는 과정에선 딸기, 체리 등 원하는 과일로 대체 가능하단다. 과연 사람, 아니 마카롱은 꾸미기 나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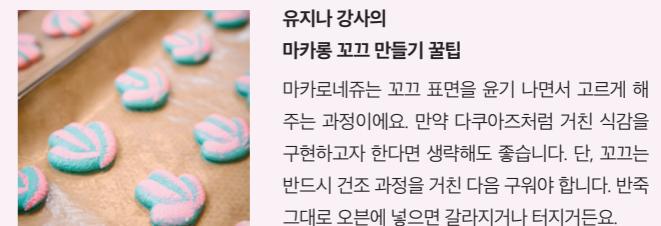
소중한 사람들과 고루 나누고픈 사랑스러운 자태

완성한 마카롱은 그대로 상자에 넣기보다 냉장고에서 모양을 잡은 뒤 포장해야 아리따운 모습이 오래 간단다. 장장 2시간 반에 걸친 여정을 마치고 몸소 만든 작품을 지긋이 바라보니 웬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입에 먹기 아깝잖아요. 잘 보관했다가 소중한 사람들과 차 한잔하면서 조금씩 맛보려고요.”

김현희 프로가 살짝 기울여 보여준 상자 안이 눈부시도록 찬란하다. 나란히 줄지어 선 마카롱 하나하나에 노력과 열정이 담뿍 담겨있다. 문득 저 아름다운 결실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다.

그런데 마카롱은 역시 사 먹는 게 좋겠다는 김현진 프로의 엉뚱한 소감에 사뭇 진지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유쾌해졌다. 정성 들여 만들어 본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유마다. 달콤한 디저트가 만 들어낸 행복한 오후가 전한 커피 향과 어우러져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유지나 강사의 마카롱 꼬꼬 만들기 꿀팁

마카로네쥬는 꼬꼬 표면을 윤기 나면서 고르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만약 다쿠아즈처럼 거친 식감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단, 꼬꼬는 반드시 건조 과정을 거친 다음 구워야 합니다. 반죽 그대로 오븐에 넣으면 갈라지거나 터지거든요.



'2019 Halla Drone Day' 개최



당사는 10월 24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라대학교에서 현장 드론담당자 및 한라대학교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Halla Drone Day'를 개최했다.

이날 당사는 자체 구축한 '드론VR 공정관리', '드론측량 3D현장관리' 등 스마트건설 신기술들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현장의 드론 담당자 40명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에는 당사 정보기획팀에서 스마트 건설 드론 운영 △드론 VR △드론 측량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한라대 재학생들도 참석한 가운데 드론 3D모델링 스타트업인 카르타(Carta) 최석원 대표가 '3D 모델링 기법활용 및 동향'을 강연했으며, '4차 산업혁명과 DT(Digital Transformation)'를 주제로 당사 정보기획팀의 특강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당사는 교내에 드론 체험 부스를 운영해 건설현장에 적용된 IT기술을 소개하고 웨어러블 로봇, Lidar 활용 드론 측량, 3D모델링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등 건설신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당사 드론 담당자들과 한라대 학생들은 직접 드론 비행을 실습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앞서 당사는 드론을 통한 360도 파노라마 촬영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드론VR 공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장 현황을 3D로 모델링해 토공량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드론측량 3D현장 관리'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외에도 모바일과 AR기술을 활용한 '모바일검측앱'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현장검측 및 현장업무를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당사는 한라그룹과 한라대학교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라대 재학생들을 위한 멘토-멘티 태임을 가졌으며, 당사 직원 멘토 11명과 토목공학과 2~4학년 학생 38명을 멘티로 매칭했다. 멘토와 멘티들은 내년 2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소통하며 학업 및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가산동 549-1번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수주



당사는 케이원디(시행사)에서 발주한 '가산동 549-1번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를 약 915억 원(부가세포함)에 수주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9-1번지 일원, 연면적 74,824.97m²(22,634.55평)에 지하3층~지상 19층, 지식산업센터 362실, 업무시설 39실, 근린생활시설 59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개월이다.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수주



당사는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 조합에서 발주한 '대신시장 주상복합정비사업'을 약 679억 원(부가세포함)에 수주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6-18번지 일원, 연면적 38,806.83m²(11,739평)에 지하5층~지상 25층, 2개동 아파트 78세대, 도시형생활주택 81실, 오피스텔 136실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개월이다.



하루
5분 투자!

몸 전체 근육의 50% 허벅지 근육 자극 운동

운동을 하다 보면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듣게 되는데, 이는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저장소이자 하체 혈액순환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간단한 동작들은 오랜 시간 앉아만 있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다.

동작 시연 시그마스포츠클럽 SFC점 왕승준 트레이너

이동했습니다

강지훈 프로	광주지하철4공구
김범수 프로	건축사업관리팀
김상현 프로	삼성레트로핏
김오승 프로	호텔신라임시도로
김희종 프로	남양주현대아울렛
박철재 프로	인프라기술영업팀
박현순 프로	광주지하철4공구
신명섭 프로	하남감일A7B/LAPT
위태봉 프로	수원역복합건물
이세민 프로	하남감일A7B/LAPT
정석주 프로	하남감일A7B/LAPT
정재욱 프로	부평목련아파트재개발

환영합니다

고재완 프로	현대오일뱅크돌핀부두
곽한주 프로	광주지하철4공구
김홍진 프로	김해북부APT
박병수 프로	삼성레트로핏
선주원 프로	광주지하철4공구
이용욱 프로	동부간선도로확장
이진희 프로	삼성레트로핏
문경식 주니어프로	종로오피스텔
심지훈 주니어프로	송도업무시설
이도겸 주니어프로	김해삼계두곡APT
장재경 담당	현대아울렛가산점
김상욱 사원	현대아울렛가산점

수고하셨습니다

방준호 프로	구리갈매택지
오재근 주니어프로	서울대스마트캠퍼스2차
노영일 담당	현대아울렛가산점
김성우 사원	현대아울렛가산점
이호상 사원	현대아울렛가산점
함승원 사원	현대아울렛가산점

축하드립니다

정진우 프로(자녀출산)	창원하수관로정비
박정현 프로(자녀결혼)	삼성레트로핏

만수무강하십시오

김상우 프로(부친칠순)	현대오일뱅크돌핀부두
김보미 프로(모친칠순)	설계팀
김현일 프로(장인칠순)	수원역복합건물
박준형 프로(부친회갑)	경의선교량개량
유건우 프로(부친회갑)	동반성장팀
강혜인 프로(모친회갑)	인프라사업관리팀
김선경 프로(모친회갑)	인사팀
정용원 프로(장모회갑)	기획팀
조성권 프로(장모회갑)	서울대스마트캠퍼스2차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전진용 프로(조모상)	김해북부APT
홍문표 프로(부친상)	삼성전자평택주차빌딩
이범형 소장(모친상)	구리갈매택지
하두근 소장(모친상)	경부동탄직선화1공구

Point!

코어에 힘을 주면서 척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또 무릎이 너무 앞으로 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허벅지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돋는 스쿼트 Squat



① 의자 등받이 부분을 잡고

몸 전체가 일자가 되도록 곧게 선다.

② 척추가 굽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의자에 앉는 포즈로

천천히 푸그려 앉는다.

③ 상체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서

몸 전체에 힘을 준 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일어선다.

허벅지와 다리라인 등 하체 전체 단련에 좋은 체어 사이클 Chair Cycle



Point!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가 굽거나 꺾이지 않도록 신경 쓴다. 또 본인의 균형수준에 맞도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0회씩 3세트가량 진행한다.

① 의자 양 끝을 잡은 뒤 의자에 앉아

복부에 힘을 준 채 두 다리를 들어

준비 자세를 취한다.

②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다리를 천천히 굴려준다.

이 때 허리와 팔은 쭉 펴지도록

주의한다.

③ 허벅지 앞과 뒤, 복부에 자극이

오는 것을 느끼면서 느린 속도로

페달 밟기를 반복한다.

B-cut  Story

보물1·2·3호 & 영원한 0순위

김영표 프로가 연신 싱글벙글 웃는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삼 남매와 이런 삶을 선물해준 영원한 0순위 아내의 사진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김 프로의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하다. 행복이 뭐 별건가. 내 가족들이 영원히 웃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터. 오늘도 가족을 위해 힘을 내어 일하고 있을 한라인들, 더 나아가 전국의 가장들에게 박수를 전한다. 파이팅!

Editor's Note

최근 건설 현장에서 드론이 '뜨고' 있습니다. 드론은 공사 전 현장 계획 수립, 공정 트래킹,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비용이나 시간을 절감하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도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또 현장과 본사가 함께 드론 매핑(mapping)을 열람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툴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10월 24일 'Halla Drone Day'를 개최해 각 현장의 드론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당사에서 자체 구축한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기 위함이죠.

'신기술 포비아'란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일컫는데요. 기술과 환경의 뒷받침만큼 중요한 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일 겁니다. 이번호에 소개된 '서울대 시흥캠퍼스 스마트관' 기사의 전경 사진도 드론으로 촬영한 것인데요. 드론이 아니라면 캠퍼스가 들어설 대형 현장 부지를 한 컷에 담을 수 없었겠죠? 앞으로 드론이 훨훨 나는 스마트한 건설 현장을 기대해봅니다.

Digital Curator's Talk!

**혁신적인 건설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에서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창업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부문에서도 분명 스타트업들이 늘었죠.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차근차근 커나간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유니콘 기업이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기업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린 기업을 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는 단 1개의 유니콘 기업도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진입한 건설 스타트업 수가 적고,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사례도 없죠. 이유가 뭘까요?

* 더 자세한 내용은 한마루 내 'Something New'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otice
사보 주재기자

허민 프로(동반성장팀), 강길현 프로(건축사업관리팀),
이진민 프로(삼성화성조경공사), 김민종 프로(인프라사업관리팀),
조세웅 프로(S사업팀)

정기 구독 & 주소 변경

기획팀으로 전화(02-3434-5791)하시거나

메일(soomin.lee@halla.com)로 신청해주세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웹진으로 연결됩니다.
<http://hallawebzine.co.kr/>

김해가 꿈꾸던 신흥주거타운의 중심 스마트 라이프의 시작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1,936세대 압도적인 스케일에

14개 테마공원,

수영장을 품은

초대형 커뮤니티시설까지-

김해에 없던

스마트 라이프를 만나보십시오



약 1,000대 이상의 여유 주차와 약 9,000㎡ 커뮤니티시설

7레인 수영장

유아풀

대형 짐질방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탁구장

당구장

카페

초등급 교통 | 기아대역 도보 6분, 남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국도 14번
수준급 교육 | 신명초교, 삼계중, 분성고, 분성여고, 기아대학교 등 우수한 학군
정상급 생활 | 디지 암 편의시설 및 기아대역, 대형마트, 백화점 이용이 편리
최상급 자연 | 해반천, 화정공원, 무척산, 김해시민체육공원 등 풍부한 자연환경

시행 | 삼계두곡 | X هو في المثلث
사용 | **Halla** 주|한리
신탁 | **KOREA** trust

3월 OPEN
055) 311.7400
64m / 75m / 84m 총 1,936세대 중 일부 일반분양